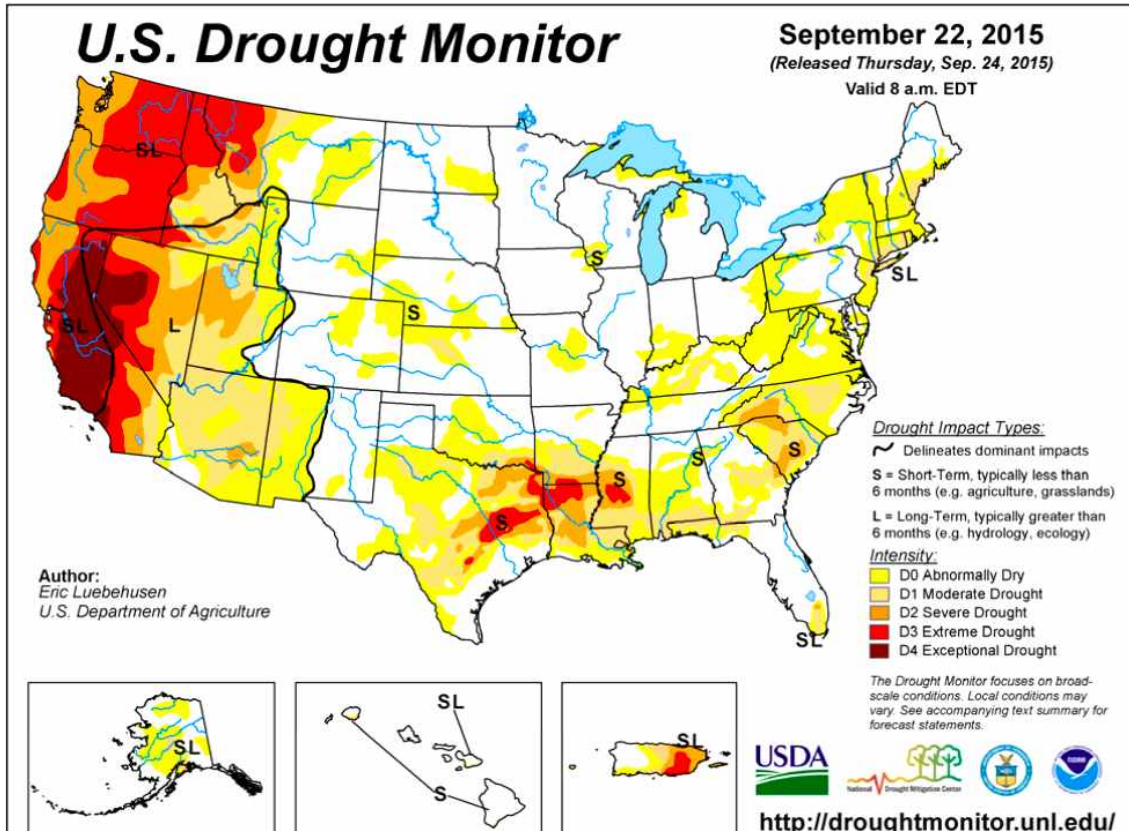


9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9)

□ 미국 기후 현황(9/20~9/26)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부와 동부의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와 대두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미시시피 델타 지역과 서부 걸프 연안지역에서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와 달리 면화 재배지역 일대에는 강한 비가 내렸고, 서부에서는 열대 저기압 Sixteen-E로부터 유입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냉전선과 만나면서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미주리 협곡 중부 지역에서도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부 대평원 일대와 중서부, 북부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고, 동부와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기록했다.

□ 농업 현황 요약(9/21~9/27)

미시시피강 서부 대부분의 지역과 옥수수 재배지역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록키 산맥 북부와 대평원 북부지역, 미시시피 협곡 산간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9°F 이상 기온이 높았다. 미국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이 이어져 수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네브라스카 동부와 버지니아 남부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강우량이 4인치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9월 27일 기준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97%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주말까지 71%의 지역에서 옥수수가 충분히 여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14%p 앞선 수준이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등에서는 지난 한주간 20%p 이상 성숙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 기준 전국적인 수확률은 18%이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는 7%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5%p 뒤쳐진 수준이다.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직전 5년 평균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9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파종률은 31%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뒤쳐진 상황이다. 몬타나에서는 지난 한주간 재배지역의 31%에서 파종을 마쳐 지난 주말까지 파종률은 6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6%p 앞선 수준이다. 지난 주말 기준 겨울밀의 발아율은 7%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4%p 낮다.

■ 면화

9월 27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열린 비율은 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p 앞선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뒤쳐진 상황이다. 9월 27일 기준 면화의 수확률은 11%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지난 한주간 루이지애나에서는 수확률이 18%p 증가했고, 미주리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각각 10%p씩 증가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앞선 수준이다.

■ 쌀

9월 27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69%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앞선 수준이다. 지난 한주간 미주리에서는 수확률이 28%p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20%p 증가했다.



□ 세계 기후 현황(9/20~9/26)

■ 유럽: 지난주 내렸던 비가 남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북부와 서부에서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농작업이 재개되었고,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초반 2~20mm의 비가 내렸는데, 주 후반부로 가면서 비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그쳤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과 겨울 작물의 파종작업이 다시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폴란드와 발칸반도 일대 등 남동부 지역에서는 주초반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과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주 후반으로 가면서 10~65mm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탈리아 일대에서는 10~30mm의 비가 내렸고,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옥수수과 해바라지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가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10°C 이상 높아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름작물의 경우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름작물의 생산량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그 외에, 몰도바 북부와 벨라루스,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10~65mm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전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여름작물의 수확을 앞당겼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10~25mm,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북부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부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일부 지역되었는데, 쌀의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의 파종작업도 잠시 중단되었다. 한편, 북동부 고원 지역에서는 면화를 비롯한 여름작물이 잘 여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태풍 Dujan의 영향으로 많은 강풍과 많은 양의 비가 몰아쳤고, 한반도 일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밀 재배지역 대부분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졌다. 서부 호주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곡식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비교적 서늘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밀이 filling stage에 도달했으며, 남호주 지역에서는 개화가 시작되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1°C 정도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졌고, 서호주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1~3°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남부 일대에는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s 등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5~50mm의 비가 내렸다. 보다 북쪽 지역의 Entre Rios, Corrientes 등에서도 10~7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졌다. 중부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지한 한주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북동부 일대에는 평년보다 5°C이상 높은 날이 많았고, 낮 최고기온이 40°C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에 못미치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고, 밤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21%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수확을 앞둔 작물의 수확작업이 상당부분 지연되었다. 우르과이 북부에서부터 Sao Paulo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Parana 일대에서는 9월 21일 기준 밀 수확률이 49%를 기록하고 있고, 85% 이상의 지역에서 filling stage를 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Minas Gerais 일대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커피 수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부지역은 지난 한주간 평년보다 3~7°C 정도 기온이 높았고,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평년보다 4°C정도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